장 백 산 천 지

제 267 호 2015 년 12 월 9 일 수요일

1. 감히 바른말을 하는 서기

나는 직장 서기(書記)와 여러 해를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박해가 발생한 후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파출소로 끌려갔다. 내가 잡혀간 것을 알게 된 나의 직장 서기는 몹시 격분해 큰 길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모(나를 가리킴)를 붙잡은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는 도둑질도,약탈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법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단지 연공하여 몸이 좋아졌을 뿐인데 뭘 믿고 사람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우리직장에서 그녀는 사람마다 공인하는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서 품행이 비르고, 마음씨가 착하며 사업을 성실하게 책임지는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공안 경찰은 그렇게 많은 범죄자는 붙잡지 않고 놓아 주면서도 오히려 모모모와 같이 선량한 보통부녀자를 잡아 가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이게 무슨 재주입니까! 그들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 서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는데 나는 몹시 감동했다.

2. 파룬따파 서적을 보호한 언니

우리 집 동쪽 계단에 살고 있는 언니는 마음씨 착하고 마음이 곧고 입빠르고 열정적인데 우리는 관계가 줄곧 좋았다.

한 번은 내가 '610'에 납치당하고, 파룬따파 서적도 빼앗겼다. 집에 돌아온 후 나의 마음은 오랫동안 괴로웠다. 어느 날 그녀 집에 가서 이 일을 말했더니 그녀는 아주 확고하게 나에게 말했다. "대법 책을 우리 집에 가져오렴. 내가 보관해 줄 테니, 누가 감히 우리 집에 와서 빼앗아 가나 보자. 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가져가. 내가 꼭 잘 보관해 줄게.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 그녀의 선량하면서도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대단한 이웃인가!

3. 위험을 무릅쓰고 소식을 전한 아줌마

나와 한 건물에 사는 아줌마는 뒤에서 남의 흉을 보기 좋아하는 단점이 있었다. 아파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멀리하면서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여태껏 그녀의 결함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를 대해줬다. 그녀가 몸이 아프면 그녀 집을 방문해 위로하면서 대법 진상을 이야기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우게 했다.

한 번은 내가 집에 있는데 급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얼른 문을 여니 아래층의 바로 그 아줌마였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아래에 경찰 몇이 자네 집에 와서 자네를 잡아가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소. 직장 사람들에게 자네를 꾀어내면 자네를 붙잡기 쉽다고 했어. 절대로 그들의 꾐에 들지 마! 절대 문을 나서지 말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 미안해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는데 내가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돼."

이 시각, 생명은 사실 모두 선량한 것이며 어려움 중에서 진심을 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아줌마의 말처럼 조금 뒤, 직장 사람이 전화로 회사에 내 편지가 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올가미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넘기게 되어 이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며칠 후 아래층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신기하다는 듯 나에게 알려주었다. "신기하기도 하네! 내 다리는 평소에 아파서 길도 걸을 수 없고 조금만 걸어도 두 다리와 발이 퉁퉁 부어 오르는데 그 날 자네에게 소식을 전한 다음부터 아무 약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나았어. 정말로 불가사의해!"

나도 그녀를 위해 기뻤다. 사실 앞에서 말한 직장 서기와 파룬따파 서적을 보호해준 언니도 복을 받았다. 이런 선량한 이웃들이 중공의 이 한차례 박해에서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다! 정의가 있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원한다!

(산둥 파룬궁수련생 글) ◇

밍후이 단신

2015 년 11 월 21 일, 캐나다 토론토 파룬궁수련생들은 초청을 받고 두 성시 (해밀턴과 조지타운시)의 성탄절 대 행진에 참가하여 중국인과 서양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중국 산둥에서 온 관중 왕여사는 "파룬궁 대오는 아주 장관입니다, 그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저의 국내의 친인과 친구들 중에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출소 소장은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여 3 퇴

[밍후이왕] 나는 몇일 전 진상을 말하며"3 퇴"를 권고하러 나갔다. 40 세 좌우인 한 남성을 만났다. 나는 다가가서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 하자 그는 도리여 나에게물었다: "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나요?"나는 말했다: " 누구나 평안을 바라지요!"그는 말했다: "나는 전문 파룬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나는 말했다: " 그럼 아주 좋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량지로 나에게 대답해주세요: 파룬궁 수련생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그는 추호의 고려없이 즉시 대답했다: "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 말 한마디는 당신 역시 좋은 사람인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탈당하면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그는 웃으면서"3 퇴"를 동의했다. 나는 그에게 가명으로 "3 퇴"(중공 당,단,대에서의 탈퇴)를 시켰다. 그는 나더러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말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말며 안전에 주의하세요!"

나는 그의 선택에 기쁜 나머지 웃으면서 그에게 " 안녕히 가세요! " 라고 말했다. 후에야 나는 알게 되였는데 이 사람은 우리지역 모 파출소의 소장이였다.◇

리구이린의 수전은 농약을 치지 않아도 수학이 아주 좋다

농약을 쓰지 않고 풍작을 거둔 밭

[밍후이왕] 현재 많은 농산품은 모두 독소가 집표를 초과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대량의 농약을 쳐야 병충해를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리구이린(李桂林)은 적어도 7~8 년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집 볏모는 오히려 아주 잘 자랐으며, 황금색의 벼 낟알은 진정한 순수한 친환경 녹색 산품이다.

59 세인 리구이린은 후난 천저우 안런현 주산향 숭강촌 왕구조 촌민으로서 여러 해째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본지의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한평생 논밭을 다뤄왔지만 이런 신기한 일은 종래로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논밭은 그 집 논밭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올해 (2015 년)상반기에 우리 집 논밭에는 벼멸구가 손으로도 잡을 정도로 많아 이미 4 차례나 살충제를 쳤지만 리구이린 집에서는 농약을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집 볏모는 한밭에서 떠온 것이고 두 집의 모 또한 나란히 붙어 있는데도 우리 집 논밭 벌레는 한 마리도 그의 집 논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리구이린이 파룬궁을 배우더니 정말 신기합니다."

연변박해소식

◆ 지린 위수 파룬궁수련생 덩리쥐안은 불법으로 체포당하다

지린 창춘시 위수 파룬궁수련생 덩리쥐안(邓丽娟)은 둔화시에서 파룬궁진상을 배포하다 납치됐다. 현재 안건은 검찰원에 넘겨 불법 체포하려 한다. 둔화 검찰원에서는 최근 안건을 공안국에 되돌려 자료를 보충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검찰원에 보내게 되었다. 듣는 소식에 의하면 "등급을 건너 안건을 처리하려고 옌볜저우 검찰원에 보내려고 한다." 덩리쥐안의 연로한 부친은 동분서주하면서 둔화와 옌지를 다니면서 딸을 내 놓을 것을 강렬히 요구하면서 빨리 딸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응당 찾아가야 할 곳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노인의 마음은 조급해 속에 불이 일 지경이다. 각계에서 관심을 주기 바란다.

◆ 룡정시 파룬궁수련생 박금자가 납치되고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 당하다

67 세인 파룬궁수련생 박금자(朴锦子)의 집은 룡정시에 있다. 2015 년 12 월 1 일 오후 4 시경 룡정시에서 달력을 세인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에 진상을 모르는 세인에게 고발당해 룡정시 공안국, 하남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8 명 사복경찰이 박금자의 집에 뛰어 들어 불법으로 집 수색을 하여 컴퓨터 2 대, 프린트 3 대, 종이(打印纸)40 보, 진상돈 2 만위안, 모든 파룬따파서적과 기타 개인 물품을 강탈해 갔다. 이리하여 박금자의 남편은 공안국에 찾아가 물었는데 박금자는 불법으로 룡정시 공안국 국보대대에서 꾸린 세뇌반에 감금된것을 알게 됐다.

◆ 룡정시 파룬궁수련생 왕취안잔, 장구이칭 등 4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되다

몇 일전 룡정시 왕취안잔(王全战), 장구이칭(张贵清)과 룽츠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2 명, 모두 4 명이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 수련생들은 모두 장쩌민 고소에 참여했다.

◆ 돈화시 대석두 림업국에서 루슈잉을 납치하다

53 세인 길림성 연변 돈화시 여성 파룬궁수련생 루슈잉(鲁秀英)이 납치되었는데 어느곳에 감금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 연변 팔가자림업국 정무즈가 세뇌반에 납치되다

2015 년 12 월 2 일, 길림성 연변 팔가자림업국 정법위원회"610"은 림업국초대소에서 세뇌반을 꾸리고 있다. 정무즈(郑慕芝)와 팔가자 여러명 파룬궁수련생들이 세뇌반에 납치됐다. 정법위원회"610"서기 리허우셴 전화: 13704333096 "610"주임 예쓰궈 전화: 0433-4864950 0433-4861157 13844349949

◆ 연길 파룬궁수련생 탕옌메이 납치되다

2015 년 11 월 11 일 오후 3 시경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탕옌메(唐艳梅)이는 장쩌민 고소 정황을 확인 한다는 이유로 주택에 뛰여든 4 명의 사복경찰에게 납치됐다. 가족은 세상 모르는 두 애를 데리고 도처에 다니며 찾아서야 건공파출소에 있다는것을 알아냈다. 4 명의 사복경찰이 타고 온 토색 면보차의 차호는: 吉 H95208 이다.